“자비나눔 실천하고 떠난 임이여 극락왕생하소서”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4. 생명나눔 천도재 현장

남양주=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던 안면부지의 생명을 살리며 장기기증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생명나눔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장기기증자의 영가를 축원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사전 및 현장접수를 받은 영가 320위를 모시고 봉행된 천도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5년부터 매년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은 생명나눔 천도재에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사후시신, 사후 각막, 뇌사 시 장기기증 등으로 자리이타행을 실천하며 생을 마치고 떠나간 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뜻을 기렸다.

2017년부터는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바친 공무희생자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천도재 날짜도 현충일로 바꿨다. 천도재를 통해 순국선열과 6.25한국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로 활약했던 육군사관생도들을 위한 천도재도 함께 봉행하고 있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는 6.25한국전쟁 당시 불암산에서 활약하던 육군사관생도들로 육군사관학교 1, 2기 생도 13명과 병사 등 20여 명이다. 이들은 불암산에서 유격대를 결성해 불암사와 석천암 주지 스님 등의 도움으로 북한군에 끌려가던 마을 주민 100여 명을 구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6.25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육사생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이들 영가를 천도하는 재를 2017년부터 매년 봉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자를 기리는 위패도 함께 모시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있다.

올해 천도재에서는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군과 경찰 등 호국영령과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義人) 등 모두 320명의 영가를 모셨다.

천도재는 시련과 대령, 관욕의식, 법문, 상단불공, 관음시식 등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스님들이 독송한 회심곡에 따라 동참자들이 제단 앞에 나아가 헌화 · 헌다를 하는 동안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마음들이 독송소리를 타고 불암사 경내를 장엄했다.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나비춤과 바라춤에 이어 경기도 무형문화재 살풀이 이수자이자 승무 전수자인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의 극락무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극락무는 긴 대나무에 흰 창호지 술을 양쪽 끝에 달아 슬픔과 한을 온몸으로 풀어내 잡귀의 근접을 막아 저승길을 닦아내는 춤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6일, 남양주 불암사에서 천도재
생명보시 영가 등 320위 봉안 진행
한국전쟁 활약한 육군사관생도 천도
등산객 등 희망등록 동참 잇따르기도

이름 모를 22살 청년의 장기기증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하는 법문으로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윤회에 대해 설명을 이어간 스님은 “현충일을 맞아 생명나눔 회원과 코로나19 희생자 및 순국선열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했다”면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대중들의 뜨거운 추모와 위로를 받아 넋이 편안히 천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일면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며 ARS 후원 동참(060-703-1133)을 권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잊지 않았다.

이날 천도재에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임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로 전투에 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구하고 작렬히 죽음을 맞은 이들의 뜻을 기리며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는 불암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각각의 사연으로 천도재를 올린 불자들도 있었다. 김진성 불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원으로서, 수년 전부터 천도재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이름 모를 영가들의 자비나눔과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에 감동해 천도재에 매년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불암산 경내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동참이 잇따라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 참가자 외에도 등산객들도 장기기증 마음을 나누며 각자의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했다.



정현숙 마하무용단장은 극락무를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불자들은 천도재 동참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실천한 영가들에 대한 기억을 되새겼다.



천도재에는 장기기증자뿐 아니라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인 등 320명의 영가가 모셔졌다.



일면 스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히 소개하는 법문으로 동참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천도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원, 불암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